

‘사랑의 온도탑’ 100도 되는 그날까지...



이웃사랑의 실천을 온도계로 나타내는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등장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송영수)는 1일 목포시 옥암동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에서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모금활동에 나섰다.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46억 8천만원. ‘사랑의 체감 온도탑’은 목표 금액의 1%가 모일 때 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 금액을 채우면 100도가 된다. ▶관련기사 20면

/목포 =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부지구 M타워 5층
문의 062-371-87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종대 캠퍼스 내
문의 062-352-5001

■ 르포 서해안 기름 유출 1년... 무안 도리포 앞바다

검은 바다와 전쟁은 끝났지만 정부 상대 ‘보상 전쟁’ 아직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 유출사건의 여파로 검은 재앙인 타르덩어리가 전남 서남해안 앞 바다를 뒤덮은 지 1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군 기적의 복구작업으로 바다는 어느덧 제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요원하고, 지역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태안 기름 유출사고 1년(12월 7일 발생)을 앞둔 1일 오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해수욕장. 갯내음이 코 끝을 찌르고 백사장은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들이 해변과 바다를 누빈 덕에 1년이 지난 지금 도리포해수욕장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온통 타르덩어리로 뒤덮인 폐허의 현상이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이 땀과 눈물로 기적을 일궈낸 이곳을 이제 삶의 채취가 물씬 풍겨왔다.

도리포 김양식장은선 어민들이 김 채취에 여념이 없었다. 일부 어민들은 1.5t급 김 채취선에 김을 가득 싣고 도리포 선착장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어민

군청 문턱 닦도록 찾아다녀도 1년간 “기다리라” 말만 되풀이

들은 당시의 상처를 잊은 듯했다. 25년째 김 양식을 하고 있는 이모(46)씨는 “그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런데 1년이란 세월이 지나니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것 같고 희망도 생기고 다시 살아갈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은 재앙과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마을은

모두 114세대, 김 양식업 25명, 맨손어업 어민은 150명이다. 타르 피해로 양식업에 종사한 어민들은 4천책(한 책당, 가로 2m·세로 40m) 규모의 김 양식장 자재를 전부 교체했다. 100책당 평균 1천500만

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6억원 가량이 든 셈이다. 맨손어업 어민들도 특산물인 바지락이 모두 폐사하는 바람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피해 보상이다.

이날 현재 무안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1천483건(김 양식 75건, 맨손어업 1천408건). 그러나 현재까지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

계비 명목으로 한 세대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900만원씩 받게 전부터다.

주민 이모(47)씨는 “보상 얘기도 꺼내지 마라. 보상 신청하려고 지난 1년여 동안 군청 문턱이 닳도록 다녔는데, 헛수고였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게 벌써 1년이 다 됐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애 가장 긴 1년’을 보낸 피해 어민들이지만 잊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생계 터전을 다시 일궈낸 수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도리포 어촌계장 박상범(52)씨는 “자원봉사자의 성원으로 도리포 해안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기적을 이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길 길이 멀다”며 “주민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도록 정부나 관련 기업 등이 하루속히 완벽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세종증권 비리 의혹 노건평씨 소환 조사 대검 중수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1일 오전 10시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노씨는 지난 2005년 세종증권측로 비 요청을 받은 정화삼씨 형제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캐피탈의 홍기욱(구속) 사장으로부터 ‘성공 보수’로 받은 30억여원의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7억~8억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성인 오락실을 차린 뒤 하루 평균 2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노씨가 소유하고 이익금을 넘겨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와 별개로 현금 등이 건네진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먼저 노씨를 상대로 정씨 형제와 홍 사장으로부터 정략받은 내용과 시기 및 방법, 농협회장에 어떻게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다른 당사자들의 진술과 비교해 모순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았는지, 홍 사장이 정씨 형제에게 건넨 30억여원 중 본인 몫이 포함돼 있는지, 30억여원 중에서 일부 현금을 건네받거나 오락실 수익금을 나눠 가졌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특근·잔업 중단

스포티지 생산라인...220여개 협력업체 큰 타격

최근 자동차 수요가 크게 줄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스포티지 생산라인의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는 초비상 경영에 들어가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20여개에 달하는 지역 협력업체는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심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자동차는 1일부터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를 비롯해 카니발(소하리공장), 소렌토(화성공장), 모하비(서산공장) 등 중대형 및 RV

차량 생산라인에 대해 잔업이나 특근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그동안 월 내수 3만대, 수출 2만대 안팎을 생산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월 5천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잔업은 하루 4시간, 특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10시간 가량 진행돼왔다.

광주시 하남산단내 A협력업체 대표는 “지난달 납품 물량이 전달에 비해 10% 감소하면서 20여명의 유급인력이 발생했다”면서 “내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납품 물량 추가 감소와 함께 일부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고유가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는 광주공장의 쏘울·봉고트럭과 모닝(서산공장), 프라이드(소하리공장), 포르테(화성) 등 소형 및 중중형자동차와 오피러스는 잔업과 특근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특근 및 잔업 중단기간에 소하리공장 카니발 라인을 개조, 프라이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인조정작업

(훈류생산)도 벌일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소형 및 중중형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 다른 자동차업체보다 타격을 덜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감소 또는 증산계획을 세계적인 경기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지난 11월 내수 2만6천145대, 해외 판매 10만7천362대 등 총 13만3천507대를 판매했다. 내수 실적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7%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는 4.5% 줄면서 총 판매 실적은 3.0%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강사진
호남한샘학원
교육전화: 062) 352-1111
홈페이지: http://www.hosam.ac.kr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49회
3월 1일(일) 오전 8:00
장소: 광주영도초등학교 및 전남대 일원(광주~보령간)
참가비용: 코스스, 코스스, 코스스
문의: 062-352-5001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49회
3월 1일(일) 오전 8:00
장소: 광주영도초등학교 및 전남대 일원(광주~보령간)
참가비용: 코스스, 코스스, 코스스
문의: 062-352-5001